

# 현대차정몽구재단, 농·산·어촌에서 재능기부

##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단은 오는 10일까지 전국 대학(원)생들의 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 '온드림스쿨 다빈치교실'을 진행한다. 8일 밝혔다.

온드림스쿨 다빈치교실은 방학 중 초등학생들의 돌봄 공백과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교육 소외 현상에 놓여있는 농·산·어촌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재단에서 선발한 대학(원)생 교육봉사자들이 여름·겨울방학 동안 전국의 농·산·어촌 초등학교에 찾아가 직접 기획한 주제별 에듀테인먼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1주일간 초등학생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올 여름으로 13회째를 맞는 '온드림스쿨 다



2018 여름방학 온드림스쿨 다빈치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학생 교사가 진행하는 창의미술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빈치교실'은 전국 대학(원)생 30개팀 104명이 참여했으며, 600여명의 농산어촌 초등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과학·정보기술(IT), 문화·

예술,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한다.

정몽구 재단은 온드림스쿨 다빈치교실에 참가한 대학(원)생들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대학교 교수진과 초등학교 교사진으로 구성된 교육자문위원단의 일대일 교육컨설팅을 진행했다. 교육 기간 동안 사용할 교재와 수업 교구 구매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뿐만 아니라 숙식비, 교통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 준비도 재단이 돕는다.

한편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문화예술 진흥 ▲미래인재 양성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NH농협은행 최창수 수석부행장(오른쪽 네 번째)과 경영기획부 직원들이 8일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물품 전달과 점식배식봉사를 실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 NH농협은행

### 폭염에 지친 취약계층 돌본다

NH농협은행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지친 주거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부행장들을 중심으로 릴레이 돌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최창수 수석부행장과 경영기획부 직원들 이날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삼계탕 250인분과 수박을 전달하고, 점식 배식봉사를 실시했다.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이 고양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이다.

같은 날 김철준 부행장과 정보보안부 직원들은 안양시에 위치한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고, 지난 7일에는 박철홍 부행장과 여신심사부 직원들이 인천시에 위치한 성인의 집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선공기와 수박을 전달하고 배식봉사도 실시했다.

오는 10일에는 주재승 부행장과 디지털금융부 직원들이 부천시 독거노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선공기를 전달하고 식사를 대접할 예정이다.

최 수석부행장은 "농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서 건강히 여름을 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계획하게 됐다"며 "농협은행은 7년 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l@

## 동화그룹 임직원 가족 '위라벨' 쟁긴다

동화그룹이 직원과 가족들의 '위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8일 동화그룹에 따르면 그룹은 2004년부터 15년째 '자녀와 함께하는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비롯해 가족 여행 지원 프로그램인 '우리 가족 행복충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룹 연수원인 동화컬처빌리지도 임직원 가족들을 위해 주말에 개방을 하고 있다.

해외탐방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동안 직원과 자녀들이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화그룹의 해외 사업장 중 한 곳을 방문, 부모

의 직장에 대한 이해도와 자긍심을 높이고 해외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에도 총 6쌍의 직원 가족이 베트남 호치민 인근 빈푹성에 위치한 VRG동화의 중밀도섬유관(MDF)공장을 견학하고 현지 전통 문화와 역사를 체험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VRG동화 MDF 공장은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베트남 MDF 시장에서 33%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우리 가족 행복



동화그룹 직원과 자녀들이 베트남 무이네에 위치한 화이트샌드 사막에서 사륜구동 오토바이 체험을 마친 뒤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화그룹

충전'도 직원들에게 인기가 있다. 가족 또는 직장에서 있었던 행복 사연을 응모하면 회사는 분기별로 두 쌍의 직원 가족을 선발해 국내 여행을 전액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오늘의 운세 8월 9일 (음 6월 28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후회 없이 기분 좋은 하루. 60년생 북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겠다. 72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니 욕심을 버려라. 84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
- 소** 49년생 자식에게 기쁜 일이 생기니 마음이 흡족. 61년생 용서만큼 완벽한 복수는 세상에 없다. 73년생 행운을 맞이할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마라. 85년생 명예는 높일 수 있으나 실리는 별로 없는 하루.
- 호랑이** 50년생 약점은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라. 62년생 길 떠나는데 폭풍을 만나니 비옷과 우산이 필수. 74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 잘 해결된다. 86년생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나감을 명심하라.
- 토끼** 51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하면 더 피곤. 63년생 돌이 있어 끄는 외로움이 혼자인 외로움보다 크다. 75년생 물을 두려워해서는 수영선수가 될 수 없다. 87년생 기대가 크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한다.
- 말** 52년생 신세 졌던 사람에게 빚을 갚는 날. 64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니 적극적으로 행동. 76년생 나의 실력을 남들이 알아주는 하루. 88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도장은 다음 날 찍어라.
- 뱀** 53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말하는 순간 더 커진다. 65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노력이 우선. 77년생 충고는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89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지기 쉽다.

- 말** 54년생 머리가 맑고 상쾌하니 새로운 일을 시작. 66년생 피곤한 날이니 금전 거래는 하지 마라. 78년생 어제의 바람이 태풍이 되어 돌아오니 주의. 90년생 우물에서 송충 찾지 말고 차분한 행동이 중요.
- 양** 55년생 세상만사 새옹지마니 낙담하지 마라. 67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 79년생 친구가 나를 모함하니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91년생 여행을 가게 되면 상비약을 반드시 챙겨라.
- 원숭이** 56년생 작은 실수는 덮어주는 아량이 필요. 68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80년생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하루. 92년생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 닭** 57년생 한 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한 법이다. 69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 사랑뿐. 81년생 작은 먼지로 눈물을 흘릴 수 있다. 93년생 눈앞의 실속을 챙기다 보면 큰 이익을 놓치지 된다.
- 개** 58년생 일이 미뤄져도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70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걸 어찌겠다. 82년생 밖은 한여름이나 내 마음은 동지선날. 94년생 기쁠 수 있는 그들이 그리운 날.
- 돼지** 59년생 지난일은 다 뒤로하고 새 출발로 위기를 벗어난다. 71년생 어제 봤던 그 사람이 귀인인가 싶은 생각. 83년생 기다리던 문서라도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95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 날.

#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5	4		7	1		
		9	1		8	7		
9		8	2		5	4		1
	4			9			2	
5		3	8		4	9		7
		6	7		9	5		
		4	3		1	2		
				4				

				7		8		
				5		6		1
				4	3		6	2
	4			3		1		
6		5	1				7	
	9	2						
5			3				8	7
		6		5			2	
	8	3					4	

스도쿠 정답								
8	1	9	2	7	5	4	6	3
6	2	7	1	9	8	5	3	4
3	5	6	8	4	9	1	2	7
4	9	6	7	1	8	2	5	3
5	2	8	3	6	9	1	7	4
1	3	5	4	2	8	9	6	7
9	5	4	8	2	1	6	3	7
2	6	1	7	3	5	8	9	4
7	8	3	9	5	6	2	4	1
5	1	7	6	2	9	8	4	3
3	6	2	8	5	4	9	1	7
8	9	7	1	3	6	2	5	4
8	3	5	4	9	7	2	6	1
7	4	6	2	8	1	5	9	3
9	2	1	5	3	6	4	7	8
2	9	4	3	8	1	5	6	7
1	7	8	9	6	5	3	2	4
6	5	8	1	2	3	7	9	4

문제 제공 = 보스



## 김상회의四季

### 재물과 관련한 액난

부처님의 기세간경을 보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시절에 보이는 양상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다. 그 내용이 현재 우리 지구와 인간사에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들과 너무 흡사해 지구의 종말이 정말 다가온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지진과 자연재해 등 환경파괴로 인해 보여지는 모습이라면,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넘어 친족 간의 살상 등의 현상을 보면서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기독교의 인간관 역시 우리 인간들은 원죄의 속성이 있다고 본다. 모든 악한 행동의 뿌리는 모두 원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기의 모든 현상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탐욕심을 조건으로 해서 발생한 결과라는 점은 기세간경의 묘사나 성경의 요한계시록과도 상통하는 점이다. 그러나 인간의 선과 악을 단순히 단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 예로 양상군자(梁上君子)란 고사성어를 들고 싶다. 중국 후한(後漢) 시절 진식(陳寔)이란 관리가 있었다. 그가 밤에 공부를 하는데 도둑이 들어와 대들보 위에 숨어 있는 것을 느꼈다. 이에 진식은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아 얘기하길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란 없다. 오직 어려운 상황을 맞아 노력하지 않기 때문인데 저기 대들보 위의 군자도 마찬가지니라." 라고 말했다. 이 소리를 들은 도둑이 대들보에서 내려와 진식에게 절하며 용서를 구했다. 이에 진식은 "네 상을 보니 처음부터 도둑은 아님을 알겠다. 지금부터 반성하고 노력한다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며 가르침을 주고 선물까지 주어 보냈다는 고사이다. 양상군자의 고사를 보다보면 상황논리에 따라 인간의 선악은 절대선과 악을 구분 짓기 힘든 것이며 이러한 예는 프랑스의 위대한 문호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도 보여지는 바다. 양상군자의 고사에서 보여 지듯 비록 사는 처지가 힘들어 도둑질을 할지언정 내면의 양심과 본성까지 훼손된 것이 아니며 다시 마음을 다잡아 개과천선할 수 있는 고귀함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보는 것이다. 선하고자, 악하고자 하는 것도 모두 우리의 양심에 내재된 종자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절이 더 할수록 인간의 심성이 더욱 황폐해지고 엄기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몹시 우려스럽다. 팔자에 재물 궁이 신약한데 백호살이 있는 경우는 재물과 관련한 액난에 놓일 경우가 생긴다. 특히 세운과 충살(衝殺)이나 파살(破殺)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기운은 더욱 농후해지니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